

‘두더지 혼인’ 설화의 해석적 코드

류정월*

【 차 례 】

- I. 서론
- II. 인도의 <소녀로 변신한 쥐>
- III. 한국의 <두더지 혼인>
- IV. 해석적 코드
 - 1. 확산의 코드
 - 2. 진동의 코드
- V. 남은 문제들

국문초록

텍스트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어떤 텍스트도 그것의 효과가 무엇이 될 것이지, 텍스트 자체로 보증하기는 어렵다. 특정 텍스트가 어떻게 해석되고, 사용되고, 기능하는가는 모두 텍스트와 세계의 의미를 구하고자 하는, 독자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이다. 본고는 인도와 한국의 ‘두더지 혼인’ 설화를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의미화 하도록 이끄는 해석적 틀과 해석적 코드를 고려하면서 비교문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소녀로 변신한 쥐>는 외곽 이야기의 의도와 본 이야기의 의미가 일치하면서 메시지가 강화된다. 나아가 왕자를 교육한다는 최종 이야기 역시 메시지의 강화에 한 몫 한다. 그 결과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는 문화 내에서 혼인, 정치, 외교 등 다양한 층위로 전이되면서 확장될 수 있다. <소녀로 변신한 쥐>와 이것이 적용되는 다양한 층위의 관계를 본고에서는 ‘확산’이라는 해석적 코드로 명명하였다. <두더지 혼인>의 해석적 틀인 논평은 이야기 기호 가운데 몇 가지에 초점을 두어 기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세속의 “두더지 혼인”이라는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현상을 강조하거나, 분에 맞지 않는 혼인을 비판하는 것이다. 논평에서 양산되는 의미는 “분수”라는 사회적 층위와 “자족”이라는 개인적 층위로 대별될 수 있다. 이는 분명하게 제시되기보다는 암시되거나 추론된다. <두더지 혼인>의 해석은 이야기의 대한 또 다른 해석 가능성을 열어 놓는 해석적 틀의 존재로 인해 더욱 다양하게 양산될 수 있다. 그것은 해석적 틀을 거치거나 빠져나가면서, 사회적 층위와 개인적 층위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더지 혼인>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진동”이라는 해석적 약호로 명명하였다.

<소녀로 변신한 쥐>가 확산을 통해 고정된 메시지를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데 비해 <두더지 혼인>은 진동을 통해 혼인의 다양한 의미를 깊이 있게 양산한다. 이상을 통해 본고는 비교문학적 연구는 개별 텍스트의 의미를 비교하는 데에서 나아가 차별적 의미를 양산하게 만드는 해석적 틀과 해석적 코드에 대한 연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열쇠어: 두더지 혼인, 쥐의 혼인, 소녀로 변신한 쥐, 『핀치탄트라』, 비교문학, 해석적 코드, 해석적 틀, 텍스트, 콘텍스트, 독자, 논평, 우화, 확산, 진동

I. 서론

고전적 입장에서 보자면 구조주의적 분석과 형식주의적 분석은 읽기 과정에 대한 탐구나 해석 행위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입장은 법칙이나 실천, 규범, 가정 혹은 명료성을 보여주는 체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텍스트의 형태와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은 특별한 규범과 해석 과정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규범과 해석 과정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텍스트가 독자를 자극하는 형식 및 의미가 설명될 것이다. 컬러(Culler)의 말대로, 텍스트 시학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읽기 연구가 되어야 한다.¹⁾ 컬러가 말하는 텍스트 시학은 독자에 대한 이론이기도 하다. 이때 컬러가 염두에 둔 것은 언어적 구축물

1) Jonathan Culler, “Prolegomena to a theory of reading”, in Suleiman, Susan R. and Crosman, Inge (eds), *The Reader in the Text: Essays on Audience and Interpret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49.

의 결과인 텍스트화된 독자이다. 특정 텍스트가 어떻게 해석되고, 사용되고, 기능하는가는 읽기 연구에서 보자면 모두 텍스트와 세계의 의미를 구하고자 하는, 독자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이다.²⁾ 독자들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하지 않는다. 텍스트에는 독자들을 인도하는 어떤 길이 나 있다. 로트만(Lotman)은 “모든 텍스트(특히 문학 텍스트)는 그 안에 우리가 청중의 영상(image of the audience)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영상은 독자를 위해서 규범화하는 규약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독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³⁾ 로트만에 따르면, 텍스트 안에는 독자를 규범화하는 지점이 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이상적 독자, 텍스트 내 독자와 경험적 독자, 실제 독자를 연결하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는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독자를 위한 규약을 “해석적 틀”로 지칭할 것이며, 텍스트 내의 독자와 실제 독자의 간극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해석적 틀이 다른 경우 유사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본고는 인도와 한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두더지 혼인’ 설화를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의미화 하도록 이끄는 해석의 틀을 연구할 것이다. 본고에서 각 문화마다 다른 해석의 틀을 밝히기는 것은 “해석적 코드”⁴⁾, 즉 해석의 규칙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된다. 해석적 틀은 텍스트 내에서 독자를 인도하는 하나의 길로 기능하면서 독자들이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도록 할 것이다. ‘두더지 혼인’은 다양한 의미를 양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적 틀이 있기 때문에

2) Lawrence Grossberg eds., *Cultural Studies*, Routledge, 1992, pp.52-53.

3) 엘리자베드 프로인드 저, 신명아 역,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랑, 2005, 135쪽.

4) 코드code는 기호 작용의 규칙을 말한다. 송효섭은 구조적 코드와 해석적 코드를 구분하는데 구조적 코드가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의 규칙인 데 비해 해석적 코드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의 규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이숲, 2013, 191-192쪽. ‘두더지 혼인’이라는 기표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양산한다. 본고는 다양한 해석 자체보다는 그 규칙을 메타적으로 명명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코드”보다는 “해석적 코드”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두더지 혼인’의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해석의 규칙을 살펴보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본고에서 중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양산되는 의미 자체보다는 그러한 의미들이 ‘두더지 혼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파생되는가 하는 데 있다. ‘두더지 혼인’을 대상으로 해석적 틀을 연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 텍스트를 둘러싼 해석적 코드를 밝히는 데 있다.

해석적 코드에 대한 연구는 유사한 텍스트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맥락에서 그 유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텍스트 해석의 맥락으로 문화를 가정할 것이다. 본고에서 해석적 코드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문화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한편으로는 비교문학적 시각을 전제한다. 이때 비교되는 문화는 한국(조선)이나 인도를 통째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두더지 혼인’이 소통되던 특정 시기, 특정 향유층이 구성한 문화를 의미한다.

‘두더지 혼인’ 혹은 ‘쥐의 혼인’은 동양권에 널리 알려진 설화 가운데 하나이다. 인도에서는 기원전에 형성된 『판차탄트라(Pañcatantra)』와 11세기 편찬된 『카타사리트사가라(Kathāsaritsāgara)』 등의 문헌에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유원경(劉元卿; 1544-1609)의 『현학편(賢奕編)』, 『응해록(應諧錄)』을 비롯해서, 20여 편이 넘는 자료가 채록되었다. 일본에서는 『사석집(沙石集)』(1283)에 수록된 것을 필두로 30여 가지의 설화가 기록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6세기 문헌인 『효빈잡기(效顰雜記)』, 『어우야담(於于野談)』에 해당 설화가 기록되어 있으며, 구전 자료가 전국적으로 약 30여 종 채록되었다.

한국에서 <두더지 혼인>⁵⁾은 일반적으로 두더지가 딸을 낳아 해(와달), 구름, 바람, 돌부처에게 혼처를 구하다가 끝내는 동족인 두더지와 혼인시키는 내용이다. 이 설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비교문학적

5) 인도와 한국의 공통 유형을 언급할 때에는 ‘두더지 혼인’으로, 한국의 유형을 언급할 때는 <두더지 혼인>으로, 한국의 속담을 언급할 때는 “두더지 혼인”으로 표기하였다.

관점에서 이루어졌다.⁶⁾ 황인덕은 이 설화가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과 한국에 전파된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쥐가 두더지로 변한 현상과 속담설화의 사용 등 한국에서의 토착화에 주목한다.⁷⁾ 맹상염은 전파론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설화를 비교하면서 특히 세부적 서사 단락과 등장인물의 변이 양상에 초점을 두고 차이를 비교한 후 그 현대적인 수용 양상을 살핀다.⁸⁾

전파론적 관점에서 ‘두더지 혼인’ 설화에 대해 연구할 때 중국은 인도와 한국을 매개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중국 설화에는 소녀가 쥐로 변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형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두더지 혼인’ 설화는 인도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우리나라 판본에는 돌부처가 나오는데, 인도의 텍스트에서 “산”으로 나타난 부분이 변형된 것으로, 그 단서 역시 중국에 있다. 중국 설화에는 산 대신 담장이나 벽과 같은 인공물이 나타난다. 담장과 벽이 중요한 공간을 구성하는 중국의 풍토에서 산이 인공물로 변형되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돌부처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⁹⁾ 또한 한국에서 등장인물이 쥐가 아니라 두더지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기도 한다. 인도와 중국에서 쥐는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파괴적인데 한국에는 이런 쥐가 없기에 두더지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⁰⁾ 이상의 전파론적 관점은 우리나라에서 향유되는 <두더지 혼인> 설화의 구체적 내용들이 형성된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기존논의에서 <두더지 혼인> 설화의 연원과 텍스트의 기본적 의미와 세부적 차이들이 밝혀졌다고 본다. 본 논의는 텍스트

6) 그 외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자기 세계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필요성을 논한 기존논의가 있다. 김태균, 「‘쥐(두더지) 혼인담’의 서사적 의미와 문학적 치료 활용」, 『문학치료연구』 2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29쪽.

7) 황인덕, 「‘두더지 혼인’ 설화의 印 中 · 韓 비교 고찰」, 『어문연구』 48집, 어문연구학회, 2005, 앞의 논문, 321-323쪽.

8) 맹상염, 「한 · 중 ‘쥐 혼인 설화’의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9) 황인덕, 위의 논문, 312면, 맹상염 위의 논문, 32-33쪽.

10) 황인덕, 위의 논문, 316쪽.

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양산되는가 하는 해석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세부적인 의미의 차이를 밝히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런 의미의 차이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같은 유형의 설화가 다른 문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두 텍스트의 해석적 코드를 고려하는 본 연구는 어떤 텍스트나 문화가 다른 텍스트나 문화보다 본질적이라거나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구술 텍스트와 기술 텍스트를 모두 다루어야겠지만 인도의 경우 구술된 텍스트를 다루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로 인해 문헌으로 기록된 텍스트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II. 인도의 <소녀로 변신한 쥐>

인도의 『판차탄트라』에는 <소녀로 변신한 쥐> 이야기가 있다. 그 서사 다락은 다음과 같다.

1. 매에 채여 가던 암쥐가 성자의 손에 떨어진다.
2. 성자는 생쥐를 어린 소녀로 변신시켜 친자식처럼 키운다.
3. 소녀가 열두 살이 되자 혼처를 구한다.
4. 성자는 기도와 위력으로 태양을 부른다.
5. 소녀는 그의 성격이 지니치게 뜨거워서 부담된다고 한다. 혹은 태양이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한다.
6. 성자는 태양에게 더 나은 신랑감을 묻고 태양의 추천으로 구름을 부른다.
7. 소녀는 구름이 너무 검고 차가워서 싫다고 한다. 혹은 구름이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한다.
8. 성자는 구름에게 더 나은 신랑감을 묻고 구름의 추천으로 바람을 부른다.
9. 소녀는 바람이 변덕이 심해 싫다고 한다. 혹은 바람이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한다.

10. 성자는 바람에게 더 나은 신랑감을 묻고 바람의 추천으로 산을 부른다.
11. 소녀는 산이 딱딱하고 엉덩이가 무거워 싫다고 한다. 혹은 산이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한다.
12. 성자는 산에게 더 나은 신랑감을 묻고 산의 추천으로 쥐 대왕을 부른다.
13. 소녀는 쥐 왕이 천하에 으뜸가는 신랑감이라며, 자신을 쥐로 둔갑시켜 달라고 한다. 혹은 쥐가 성자에게 소녀가 어떻게 자신의 굴로 들어오겠냐고 묻는다.
14. 성자가 소녀를 다시 쥐로 변신시켜서 쥐 대왕과 혼인시킨다.¹¹⁾

제목이 시사하듯, <소녀로 변신한 쥐>에서는 변신이 중요한 모티프이다. 쥐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성장하지만 혼인을 위해 다시 쥐로 돌아간다. 두 번의 변신을 통해 이 이야기에는 소녀/쥐, 사람/동물의 대립항이 만들어진다. 쥐는 소녀로 변해 성자와 오랜 시간을 산다. 성자는 소녀를 변신시킬 수 있고 그녀를 위해 최고의 신랑감에게 구혼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쫓기는 쥐를 살려냈으며, 소녀를 친딸처럼 여기고, 그녀를 위해 여러 구혼자를 청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다시 아무 조건도 없이 소녀를 쥐로 변신시킨다. 성자는 신비한 능력과 훌륭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 쥐는 동물로 태어나지만 인간으로 성장한다. 타고난 본성은 쥐이지만 획득된 개성¹²⁾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녀는

11) 『판차탄트라』 한국 번역본은 서수인 역, 『판차탄트라』, 태일출판사, 1996 참고. 여기에서는 신랑감에 대한 소녀의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영역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판차탄트라』의 이본 계열도는 매우 복잡하며 이본 간 차이가 크다. 『판차탄트라』의 이본 계열도에 대해서는 강성용, 『판차탄트라(Pañatantra)』의 전승과 교훈—도덕(dharma)과 현실(nṛti) 사이에 선 삶을 가르치는 인도 고대의 우화—, 『구비문학연구』 3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193쪽 참고. 본고에서는 한국 번역본과 영역본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한다. 영역본은 Patrick Olive trans., *The Pacatantra: The Book of India's Folk Wisdom*, Oxford, 1997.

12) 본성과 개성을 대립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철학적 맥락에서는 일반적이다. 사전적 의미로 “개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개성”은 본성과 대립되는 용어로, 탄생하면서 저절로 가지게 되는 성품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쥐 대왕을 보는 순간 쥐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성자는 결국 소녀의 외형을 바꿀 수 있었으나 소녀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는 원래 가지고 있던 쥐의 본성이 변신으로 획득하게 특성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³⁾ 본성과 개성의 이러한 위계¹⁴⁾는, 성자의 능력과 미덕으로도 바꿀 수 없다. 두 번의 변신은,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소녀가 결국은 쥐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껴 혼인하는 것처럼, 외형적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사람의 내면을 가질 수는 없다. <소녀로 변신한 쥐>는 타고난 본성과 획득된 개성 사이의 대립, 나아가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생산한다. 본성과 개성의 대립과 개성에 대한 본성의 우위는 이야기의 해석적 틀을 고려하면 훨씬 강력한 것이 된다.

이 이야기는 『판차탄트라』의 3장, “전쟁과 평화”의 열세 번째 이야기이다. 『판차탄트라』의 다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외곽 이야기(frame story)와 부속 이야기가 있다. 3장의 외곽 이야기는 까마귀 왕이 적국인 올빼미 왕국에 재상 스티라지비를 스파이로 파견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한다. 올빼미 왕은 대신들에게 스티라지비를 쫓아낼까, 받아들일까를 묻는다. 대신들이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여섯 개의 이야기(부속 이야기)가 진행된다. 현명한 신하인 락타크샤는 스트라지비의 모략을 알고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에 반대한다. 올빼미 왕이 다른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자 락타크샤는 다시

습득된 행동 패턴이나 능력을 말한다. 소녀는 쥐로 태어나면서 쥐의 동물적 본성을 가진다. 쥐가 소녀로 변신한 것은, 쥐가 인간으로서 개성을 획득했다는 데 대한 우화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3) 『판차탄트라』의 <소녀로 변신한 쥐>가 변하지 않는 본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데 대해서는 황인덕, 앞의 논문, 308쪽.
- 14) 선천적 특징인 본성과 후천적 특징인 개성의 대립은 『판차탄트라』를 해석하는 중요한 약호 가운데 하나이다. 좋은 정책은, 미덕(개성)보다는 태생(본성)을 신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 사이에 우정은 불가능하다.”는 속담이 자주 인용된다. Patrick Olive trans., *The Pacatantra: The Book of India's Folk Wisdom*, Oxford, 1997. xxxv.

올빼미 왕을 설득하기 위해 세 가지 이야기를 더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녀로 변신한 쥐>이다. 락타크샤는 다음과 같은 운문으로 운을 댄다.

남편이 되기를 원했던
해, 비, 바람, 산을 마다하고
쥐-소녀는 다시 자기 원래 종족으로 돌아갔어
자신의 족속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구나

이 말을 들은 왕이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묻는다. 그 대답으로 락타크샤는 <소녀로 변신한 쥐> 이야기를 한다. 외곽 이야기에서 운문과 산문, 질문과 대답이 교차하면서 이야기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소녀로 변신한 쥐>는 까마귀 스트라지비를 쫓아내야 한다는 정견(政見)을 밝히기 위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락타크샤는 친자가족과 함께 다른 동굴로 떠난다. 그 후 올빼미 왕은 스트라지비로 인해 불타 죽는다. 결국 외곽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소녀로 변신한 쥐>의 화자인 락타크샤가 옳았다는 것이 판명난다. 스트라지비는 올빼미인 척하지만 까마귀의 본성을 버리지 않았다. 본성은 개성보다 강하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올빼미 왕은 죽었으며 그것을 간파하고 있던 락타크샤는 살았다. 이 외곽 이야기는 부속 이야기의 메시지를 삶과 죽음의 틀 안에서 다시 읽도록 한다. 본성과 개성의 대립은 결국은 본성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판차탄트라』의 서두에 나오는 최종 이야기 역시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재강조 한다. 여기에서는 비슈누샤르만(Visnuśarman)이라고 하는 학식 있는 브라만이, 지혜도 미덕도 없는 세 명의 왕자를 가르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정황이 나타난다. 이는 『판차탄트라』 소재 백 여 가지 외곽 이야기와 부속 이야기기가 속하는 최종적 틀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이야기의 첫 번째 독자(청자)로 상정된 둔한 왕자들이 나온다. 이들은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외교에서 개성보다 본성을 중시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판차탄트라』에서 본성과 개성의 문제는 철학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판차탄트라』의 장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1장, “동맹에서 불화를 야기하는 것”이 가장 긴데 전체의 45% 차지한다. <소녀로 변신한 쥐>가 포함된 3장, “전쟁과 평화”가 그 다음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¹⁵⁾ 이러한 장 배치와 각 비중은, 『판차탄트라』가 지향하는 바가 선과 악의 도덕적 판단보다는 동맹을 맺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다.¹⁶⁾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는 사실은, 승리를 위한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하나이다.

『판차탄트라』의 <소녀로 변신한 쥐>는 몇 겹의 해석적 틀에 쌓여 있다. 이야기에 삽입된 운문, 이야기를 액자로 하고 있는 외곽 이야기, 나아가 최종 이야기가 모두 그러한 해석적 틀로 기능한다. 이 틀을 통해 우화의 메시지에는 삶과 승리의 가치가 부여되고 메시지는 더욱 구체화되며 강력해진다. 독자들은 이야기의 서두부터 읽어나가면서 『판차탄트라』의 이야기가 정치와 외교에 관한 지침을 전달할 것임을 기대하고 여기에 따라 개별 이야기의 의미를 확정짓는다.

<소녀로 변신한 쥐>는 다른 설화집인 『카타사리트사가라』에도 나타난다. “카타사리트사가라”는 “이야기의 강물이 흘러가는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대의 설화들을 종합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 설화집은 11세기의 카슈미르 시인 소마데바가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우다야나왕 행장기(行狀記)”와 “나라바하나 왕자

15) 『판차탄트라』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동맹에서 불화를 야기하는 것”, 2장은 “동맹을 확고하게 하는 것”, 3장은 “전쟁과 평화”, 4장은 “얻은 것을 잃는 것”, 5장은 “성급한 조치”이다. Patrick Olive trans., *The Pacatantra: The Book of India's Folk Wisdom*, Oxford, 1997, p.14.

16) 인도에서 『판차탄트라』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세상살이의 학문’(nīti-śāstra: 처세학 혹은 현실정치학)으로 자리매김 된다. 강성용, 『판짜탄뜨라(Pañatantra)』의 전승과 교훈—도덕(dharma)과 현실(nīti) 사이에 선 삶을 가르치는 인도 고대의 우화—, 『구비문학연구』 3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189-190쪽.

행장기”가 그것이다. <소녀로 변신한 쥐>는 나라바하나 왕자 행장기에 속한다. 왕자가 약혼녀를 그리워할 때 대신(大臣)이 밤에 왕자를 위로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 가운데 <소녀로 변신한 쥐> 이야기가 있으며 그 내용은 『판차탄트라』와 거의 유사하다.

『카타사리트사가라』에서 <소녀로 변신한 쥐>를 포함하는 이야기인 “왕자의 모험”은 『판차탄트라』의 최종 이야기인 “왕자의 교육”보다는 유희적이며 형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외곽 이야기가 존재한다. <소녀로 변신한 쥐>는 『판차탄트라』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향유되지 않는다. 앞과 뒤에 외곽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으며 그 외곽 이야기는 <까마귀와 올빼미의 전쟁>이다.¹⁷⁾ 까마귀 나라에서 올빼미 나라에 스트라지비를 파견하고 그의 귀속 여부가 문제되는 가운데 <소녀로 변신한 쥐>가 구연된다. 마찬가지로, 까마귀 왕은 현명한 신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죽는다. 『카타사리트사가라』의 <소녀로 변신한 쥐> 역시 등장인물의 서로 다른 귀결을 통해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는 것을 하나의 진리로 위치시킨다. 다만 이 메시지는 유희적인 최종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실제적 사용은, 교육적 목적을 가진 『판차탄트라』의 경우보다 무의식적이 될 수도 있다.

Ⅲ. 한국의 <두더지 혼인>

한국의 <두더지 혼인>에는 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설화를 둘러싼 외곽 이야기나 최종 이야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두더지 혼인>은 독립된 이야기로 읽히며 본성에 관한 이야기로 읽히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두더지 혼인> 설화가 나타나는 문헌들은 고상안(高尚顔;

17) C. H. Tawney, M.A., *The Kathāsarisāgara: Ocean of the Stream of Story*, Calcutta: Baptist Mission Press, 1880 (Digitized by the Internet Archive, 2007), V, pp.109-110.

1553~1623)의 『효빈잡기』,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야담』, 홍만중(1643~1725)의 『순오지』, 심익운(1734~?)의 『백일집(百一集)』, 작자미상의 『계압만록(溪鴨漫錄)』, 이우준(李遇駿; 1801~1867)의 『몽유야담(夢遊野談)』, 작자미상의 『기관(奇觀)』¹⁸⁾이다.¹⁹⁾ 이들 문헌에 나타난 <두더지 혼인> 설화에는 공통점이 있다. 해(→달)→구름→바람→돌부처(돌미륵, 석불)→두더지로의 구혼여행 이야기와 함께 논평이 첨부된다는 점이다.

논평은 담론적 저자가 행한, 이야기에 대한 일차적 독서의 산물이다. 논평을 통해 담론적 저자는 이야기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밝히는데, 이 의견은 이야기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²⁰⁾는 점에서 『판차탄트라』에서 운문이나 외곽 이야기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특히나 이 논평들은 우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 이야기가 인간 이야기로 읽힐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기술된다. 자연스럽게 논평은 동물 세계 · 이야기 세계가, 인간 세계 · 현실 세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18) 원전은 다음과 같다.

고상안, 『효빈잡기』, 김남형 역,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저자미상, 『기관』, 서울대소장 필사본, 연도미상.

저자미상, 『계압만록』,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도미상.

홍만중, 『순오지』,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71.

심익운, 『백일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도미상.

19) 황인덕은 야담집에서 이러한 “동화류 민담”을 기록하는 것이 드문 예라고 하면서 “이 민담이 다행히 한문기록으로 정착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곧 그 당시에도 이 설화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음과 함께, 그것이 지닌 주제의 보편성이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황인덕, 「『두더지 혼인』 설화의 印 · 中 · 韓 비교 고찰」, 『어문연구』 48집, 어문연구학회, 2005, 302쪽.

20) 이동근은 독자의 독서 과정을 통제하고 의미를 제한하는 것이 논평의 기능이라고 보았다. 이동근, 『朝鮮後期 「傳」文學研究』, 태학사, 1991, 249쪽. 박희병은 논평에 대해, “작자가 지금까지의 서술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평가”한다고 보았다.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00쪽. 최진아는 논평을 “서사에 대한 서사’인 메타 서사”로 보면서, 그것이 담당하는 역할이 “독자로 하여금 작가가 의도한 방향으로 독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서사는 한갓 허구가 아닌 진실한 담론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진다. 최진아, 「당대 애정류 전기 연구」, 연세대학교 중문과 박사학위논문, 2002, 188-189쪽.

기술하는 방식을 택한다.

두더지 혼인

옛날에 두더지 한 마리가 딸을 낳았는데 예뻤다. 천하에 둘도 없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태양에게 구혼하였다. 태양이 달에게 양보하면서 “나는 낮에는 밝으나 밤에는 빛을 내지 못하니 밤을 밝히는 달보다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달에게 구혼하니 “내가 어두운 밤을 밝힐 수는 있으나, 검은 구름이 나를 가리면 킁킁하여 광채가 없어지니 강한 구름보다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구름에게 가서 약혼하려하니 구름이 무심하게 말하기를 “내가 온 하늘을 가리어 해·달·별로 하여금 빛을 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으나 바람이 한 쪽에서 일어나면 만 리 밖으로 날려가서 의지하여 머물 곳이 없으니 힘 있는 바람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바람에게 가서 약혼하려 하니 바람이 화를 내며 고함쳐 말하기를 “내가 구름을 날아가게 하고 바닷물을 일렁이게 하며, 나무를 꺾고 모래를 날리니, 돌부처는 뚫을 수 없으니 돌부처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였다. 곧 돌부처에게 매파를 보내니 부처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땅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오랜 세월을 지내 왔으니 너희들이 땅을 파서 내가 앉아 있는 한 쪽을 무너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끝내 두더지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는 딸을 낳아 혼처를 구함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가 끝내는 처지가 서로 비슷한 곳으로 시집보내는 경우가 있으면 이를 두고 ‘두더지 혼인’이라고 한다. (『효빈잡기』)

이것은 처음에는 가장 높은 일을 구하다가 필경엔 같은 동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다. (『순오지』)

무릇 자기 분수를 넘어 일 도모하는 자가 자기 본분으로 돌아오면 세속에서는 ‘두더지 혼인’이라고 부른다. (『기관』)

『효빈잡기』와 『기관』에서 논평은 이야기가, 세상에서 말하는 “두더지

혼인”이라는 관용어와 연관되는 것임을 밝힌다. 『순오지』는 속담에 관한 설화들을 기술하는 가운데, ‘야서혼(野鼠婚)’이라는 제목 뒤에 설화를 서술하고, 위의 논평을 첨부한다. 담론적 저자들은 이 관용어가 민간(세상, 세속)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두더지 혼인”은 혼처를 구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높은 곳에서 구하다 비슷한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이른다. 논평에서 이야기를 현실과 연결 짓는 방식은 텍스트의 등장인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야기 세계와 현실 세계를 동형으로 보는 것이다. “두더지 혼인”으로 지칭되는 혼사의 형태는 이야기 내에 나타나는 혼사의 형태와 유사하다. 다만 『순오지』와 『기관』에서는 이야기와 현실 세계를 연결 짓는 사건을 “일”로 설정하고 있어 범주의 확대를 보여준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논평들은 모두 이야기를, 세간에서 말하는 “두더지 혼인”이라는 관용구의 의미로 위치시킨다. 이때 설화 <두더지 혼인>은 “두더지 혼인”이라는 메타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객관적 기의가 된다. 『동언해(東諺解)』²¹⁾ 같은 속담집에서 “두더지 혼인”에 대해, “헛되이 높이 바라다가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사전적 설명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야기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 짓는 것은 “혼인”일 수도 있고 그것을 포함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두더지 혼인>에 대한 가장 빈번한 논평의 방식은 혼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혼인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는 논평들도 있다.

예로부터 국혼으로 인해 화가 미친 일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는 두더지가 자기 무리와 혼인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다. 무슨 말인가? 옛적에 두더지가 새끼를 낳아 매우 아꼈는데, 장차 혼인을 구하고자 하였다. [중략] 두더지는 매우 놀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탄식하였다.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족속으로 우리 족속만 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드디어 두더지와

21) 편자 미상의 『공사항용록(公私恒用錄)』에 기록되어 있는 한문속담집으로 총 422수의 속담을 수록하고 있다.

혼인시켰다. 대저 사람으로 분수를 알지 못하고 감히 국혼을 하여 사치스러움을 마음껏 누리려 하다가 끝내 재앙이 미치게 되었으니 두더지만도 못한 것이리라. (『어우야담』)

민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두더지는 자기보다 나은 사윗감을 얻고 싶었다. 하늘에게 청혼을 하였지만 하늘은 “나는 비록 높지만, 해가 없으면 밝게 할 수 없다. 해는 나보다 낫다.”라고 하였다. [중략] 두더지는 기쁘게 말하기를 “천하에서 제일 높은 놈은 나다.” 그래서 두더지와 혼인을 하였다. 이것은 비록 실없이 하는 말이지만, 충분히 놀랄 만하다. 대범 혼취(婚娶)하는 것은 혼인할 남녀의 두 집안이 걸맞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빈부를 논하지 않고 떳떳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윤석(胤錫)이라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승지(承旨) 이흥종(李興宗)의 손자이다. 높은 벼슬을 가진赫赫한 명문대가이다. 하지만 그는 부를 위하여 전무현이라는 병사의 사위가 되었다. 전씨는 대대로 무가의 집안이었고, 성도 회귀한 성이었다. 윤석이 이미 본색을 잃었으니, 친지 중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기롱하였다. “그대가 전씨 집안을 취하는 것은 그 집안의 밭 때문이다. 전가는 몇 경의 밭을 떼어주겠는가. 밭은 비록 신실하고 아름답지만, 네 땅이 아니다. 마음의 밭을 잃지 말아야 진짜 복전이다.” 세상 사람들이 명언이라 하였다. (『몽유야담』)

『어우야담』은 국혼으로 인한 화를 제기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두더지 혼인> 설화를 기술한 다음 국혼을 탐하다가 재앙을 얻게 되는 경우는 두더지만도 못한 것이라고 끝맺는다. 이 논평은 『효빈잡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구성 요소 가운데 혼인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현실 세계와 텍스트 세계를 동일하게 연결한다. 『몽유야담』의 논평자는 두더지의 혼인은 집안이 걸맞은 혼인이라고 보면서, 당대에 이윤석이 재산을 탐하는 혼인을 하였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현실 세계 인물이 이야기 세계의 두더지보다 못하다는 점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논평한다. 『몽유야담』에서는 두더지가 “천하에서 제일 높은 놈은 나다.”라고 하며

두더지와 혼인한다. 이런 표현은 두더지의 귀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각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준다. 이야기에서 두더지의 언술은 논평에서 혼인하려는 사람이 “떴떴함”을 얻는 것으로 환언되어 표현된다.

이 논평들에서 두더지의 혼인을 통해 인간의 혼인 세태를 비판할 때, 두더지는 분수를 아는 인물의 기표가 된다. 논평부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두더지는 자신이 제일 낫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평자들은 두더지조차도 자신의 분수를 아는데 혹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한 것은 비난 받을 일이 된다고 본다. 앞서 『효빈잡기』 논평에서는 두더지 일련의 구혼 행위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설화에 나타나는 두더지의 혼인은 논평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두더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두더지는 분수를 알거나 자존감이 있는 이상적 인물의 기표일 수도 있고, 허영심 많은 열등한 인물의 기표일 수도 있다.

이상의 텍스트는 <두더지 혼인> 설화를 세간의 “두더지 혼인”이라는 관용구의 기의로 위치시키거나, 설화에 빗대어 세간의 혼인을 비판한다. 이와는 다른 방식의 논평도 있다. 『백일집』에서는 두더지 혼인의 내용을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논평을 첨부한다. 이 논평은 매우 길어 심지어는 별개의 서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담론적 저자는 <두더지 혼인> 설화와 의 연결 고리를 치밀하게 구성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문장을 배웠는데 천하에 문장보다 더 나아갈 것이 없다고 여겼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성인이 없으면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서, 천하에는 성인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배운 바를 다 버리고 성인의 도를 배웠다. 또 생각하기를, 성인은 자기의 몸을 수고롭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초조하게 해서 도를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도가 이루어졌는데 몸이 마칠 때까지 등용된 바가 없었다. 중니(仲尼)는 노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가 없었고, 맹자는 추나라를 크게

할 수가 없었다. 누가 말했는가? 성인이 되어가지고서 자기 부모의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남을 구했으랴? 후세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천하에 사공(事功)보다 현명한 것은 없으니, 마땅히 매년 자기의 기술을 행해서 후세에 그 이름이 일컬어지게 하자고 생각하여 이에 성인의 도를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사공을 이루는 것을 공부로 삼았다. 또 생각하기를 사공을 배워 어찌 남에게 베풀 수가 있겠는가? [중략]

대범 성인은 하늘과 같은데, 하늘은 진실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사공은 후세에 드리우고 과거는 지금에 있어서 빛난다. 또한 구름이 눈에 지나가는 것과 바람이 귀에 지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농사와 누에를 치는 것은 하늘을 기다리는 일이고, 죽을 때까지 애를 쓰고 하는 일은 많은데 이룬 것은 적다. 마치 석불을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스스로 수고로울 따름이다. 내가 문장을 하는 것은 마치 두더지가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다니는 것과 같다. 비록 작은 재주여서 배우는데 부족할지라도, 그 이치가 깊고 오묘하여 스스로 묘리에 정진하지 않으면 애써 배워도 되지 않는다. 두더지가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행하는 것은 다른 쥐가 못하는 일이다. 자기 천성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즐겨 행할 수가 없다. 그 일로서 서로 같은 것이라서 기재한 것이다. (『백일집』)

여기에서는 현실 세계와 이야기 세계를 정치하게 연결하고자 한다. 성인과 해, 구름과 사공, 과거(科擧)와 바람, 농사·누에와 석불, 문장과 두더지의 공통점을 언급한다. 기존 논평이 혼인이나 일 등의 몇 가지 기호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야기의 기호 모두를 현실의 기의와 관련시킨다. 가령 ‘나’가 문장을 하는 것과 두더지가 땅을 파는 것은 천성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것들은 주체에게 자족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백일집』에서 <두더지 혼인> 설화는 새롭게 이해된다. 다른 논평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과 관련지어 <두더지 혼인> 설화를 해석했다면 여기에서는 천성적으로 좋고 만족스러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설화를 해석한다. 『백일집』의 이 논평은, 두더지의 혼인 과정을

자신의 학문 과정과 동일시하면서 자족감(혹은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몽유야담』의 평자가 혼인에서 “땃땃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더지 혼인>의 논평은 두 가지 양상을 가진다. 하나는 학문 과정으로 전이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혼인과 관련하여 “두더지 혼인”이라는 기호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두더지 혼인>의 향유자들에게는 혼인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두더지 혼인>은 “분수”나 “자족”이라는 기의 혹은 해석소를 양산한다. 이 두 가지 해석소는 모두 <두더지 혼인>이라는 텍스트를 해석한 결과이지만 서로 이질적이다. “분수”를 아는 것은 사회적 질서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자족”은 외부의 질서보다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중시할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다. 이렇게 <두더지 혼인>의 해석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가 개인의 심리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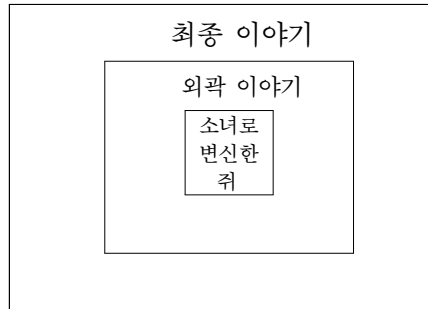
IV. 해석적 코드

1. 확산의 코드

『판차탄트라』에는 의미를 제한하는 겹겹의 틀이 있다. 이야기의 의미는 삽입된 운문, 외곽 이야기, 최종 이야기 등 그 틀들을 통과하면서 고정된다. 인도에서 <소녀로 변신한 쥐>의 해석적 틀은 본성과 개성의 대립을 넘어서서,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라는 가치의 위계화를 심화하는 강력한 틀이다.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올빼미 왕이 죽는다는 외곽 이야기와, 그러한 외곽 이야기를 통해 승리의 지혜를 터득해가는 왕자들의 최종 이야기는 <소녀로 변신한 쥐>의 해석 여지를 제한하며 메시지를 강력하게 만든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두더지 혼인>의 논평은 그렇게

강력한 해석적 틀이 아니다.

〈소녀로 변신한 쥐〉의 해석적 틀



〈소녀로 변신한 쥐〉는 혼인이라는 사건을 통해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외곽 이야기에는 다른 나라 신하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며, 이는 왕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최종 이야기를 구성한다. 부속 이야기는 혼인의 문제를, 외곽 이야기는 정치의 문제를, 최종 이야기는 교육의 문제를 다룬다. 이야기와 해석적 틀에서 등장인물뿐 아니라 문제적 상황이 모두 다르다. 텍스트 층위가 다양하기에 현실에서 이야기가 수행되는 층위 역시 다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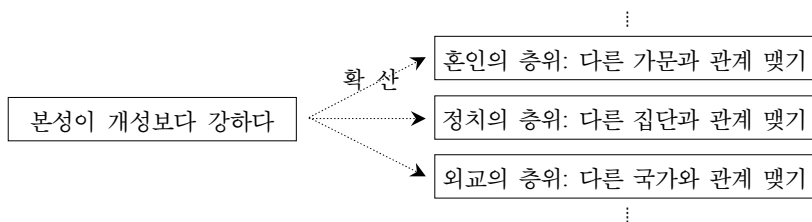
이를 통해 〈소녀로 변신한 쥐〉가 우화로 기능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우화는 표현된 의미 이면의 의미를 중시한다. 감춰진 의미, 비유가 지향하는 의미(tenor)가 표면적 의미, 기술된 의미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이것은 장자(莊子)가, 말이라는 것은 물고기(의미)를 잡는 통발과 같은 것이라서 물고기가 잡히면 통발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²²⁾ 인도에서 〈소녀로 변신한 쥐〉는 통발과 유사해서,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라는 물고기를 잡는 하나의 도구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인도에서 〈소녀로 변신한 쥐〉는 “설득”과 “훈육”을 위해 이야기된다.

22) 데이비드 롤스톤, 『중국 고대소설과 소설 평점: 행간 읽기와 쓰기』, 조관희 역, 소명출판, 2009, 146-147쪽.

올빼미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 대신이 <소녀로 변신한 쥐>를 이야기 하고, 이는 왕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최종 이야기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야기를 통해 왕자들은 지혜와 미덕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다른 일반 독자들에게 기대되는 효과이기도 하다. <소녀로 변신한 쥐>는 텍스트 외부에서 독자의 현실 세계를 교정하려는 실천적 의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수행적(the performative)²³⁾이다. 현실에서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기되어야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이다. <소녀로 변신한 쥐>의 메시지는 현실의 다양한 층위에 적용 가능하다. 다른 사람, 다른 가문,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문제시 되는 모든 상황에서 환기 가능하다. 이 메시지는 자아와 타자가 만나는 구체적 상황에서 타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이끌고자 한다. 이런 수행적 지점은, 이야기가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라는 사실 혹은 진실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데에서 기인하기에 이 이야기는 진술적(the constative)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소녀로 변신한 쥐>의 해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이는 오스틴(Austin)의 용어이다. 그는 모든 종류의 언표 혹은 발화 행위를 진술적인 것과 수행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진술적인 것은 사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진술, 즉 명백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수행적인 것은 어떤 말을 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행할 때를 가리킨다. 수행적 발언의 예는 약속, 헐박, 기도, 자백, 덕담, 험담, 도전장, 내기, 사랑 고백이나 선전포고, 종교재판이나 성전 선포 등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들은 이후 데리다에 의해 비판과 해체의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는 진술문이지만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고 나는 단언한다).’에서 괄호 안의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니콜러스 로일, 『자크 데리다의 유령들』, 오문석 역, 엘피, 2003, 72-74쪽,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54-56쪽.

해석 과정에서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는 혼인, 정치, 외교 등 다른 층위로 전이된다. 이 텍스트의 해석 틀은 바로 이러한 층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외곽 이야기와 최종 이야기에서 상이한 상황을 거치면서 메시지는 분명하게 고정된다. <소녀로 변신한 쥐>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다양한 층위로 메시지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각각의 상황에 있게 되는 주체들은 이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타자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나아가 적절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소녀로 변신한 쥐>의 해석 층위를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끌어내는 데에는 모두 메시지의 “확산”이라는 해석적 코드가 메타적으로 작동한다. 이 텍스트의 해석의 지평은 “확산”을 통해 다양한 층위들로 퍼져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위 도표는 세 가지 혼인, 정치, 외교의 층위에서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메시지가 확산될 수 있는 층위는 이 외에도 지역, 교육, 무역 등 자아와 타자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소녀로 변신한 쥐>의 해석의 지평은 부채꼴 모양으로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진동의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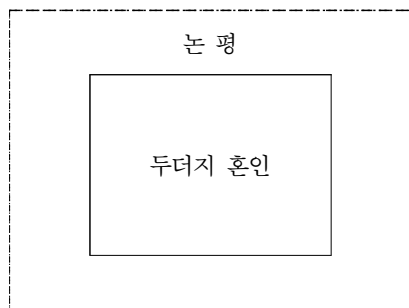
<두더지 혼인>의 논평 자체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행의 시작에 초점을 두면서 두더지의 지나친 욕심을 지적하기도 하고, 시작보다는 분수를 자각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두더지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논평에서 두더지의 여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견(異見)이 제시된다. 사회적 질서를 자각하는 과정으로 보기도 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두더지 혼인>의 의미나 가치는 불분명하게 유통된다. 논평은 그 흔적이며, 때로는 그러한 경향을 강화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이야기의 의미가 틀을 통과하면서 더욱 고정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이야기의 의미는 논평을 통해

다양해진다. 뿐만 아니라 논평을 빠져나가 형성될 수도 있다. <두더지 혼인>의 논평은 이야기 일부에 초점을 맞추기에 의미를 총괄하지는 못한다. 이 논평들은 <두더지 혼인>의 해석 가능성을 제한하지만 텍스트 일부 기호에 초점을 맞추기에 어떤 기호는 논평을 통과해 나가서 의미를 양산할 수 있다. 가령 『순오지』는 <아서혼>의 이야기 끝 부분과 논평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천하에서 제일 높은 놈은 나다. 나보다 더 높은 놈이 있거든 나와 봐라.”하면서 그 짧은 꼬리와 날카로운 입부리가 나의 가장 존귀한 모습이라 하고, 드디어 두더지끼리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가장 높은 일을 구하다가 필경엔 같은 동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다.

앞서 본 것처럼 위의 논평은 처음에 가장 높은 일을 구하다가 같은 동류에게로 돌아간다는 두더지의 회귀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세간의 비유에 대한 기의임을 밝힐 뿐, 회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는다. 두더지가 자신의 장점을 깨달아서 회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만해져서 회귀했다는 것인지, 두더지가 작지만 존경할 만한 존재라는 것인지, 종족적 편협함을 가진 회귀적 존재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논평이 초점을 두지 않는 텍스트 기호는 논평의 틀을 벗어나 독자에게 의미의 다양성 혹은 모호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논평은 독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텍스트를 해석하는 하나의 길이기는 하지만 잘 보이지 않거나 따라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다. <소녀로 변신한 쥐>가 해석적 틀을 거치면서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고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더지 혼인>의 해석적 틀은 다음과 같은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그려진다.

〈두더지 혼인〉의 해석적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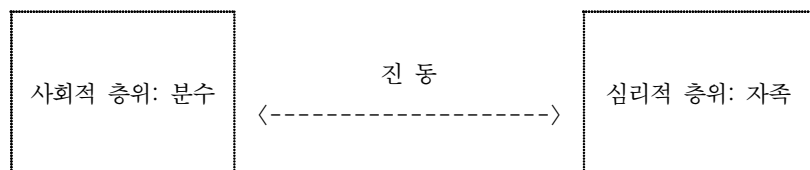


〈두더지 혼인〉은 “혼인”이라는 이야기의 사건을 통해 현실 세계를 연관 짓는다. 드러난 의미도 혼인에 관한 것이고 감추어진 의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도 혼인에 관한 것이다. 〈두더지 혼인〉이 우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는 특수한 해석적 방식이 존재한다. 논평을 보면, 우화가 가지는 일차적 의미가 완전히 소거되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의미(학문의 과정이나 학문적 성찰 등)가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더지 혼인”이라는 관용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더지 혼인〉 설화에서 혼인이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소녀로 변신한 쥐>에서 변신 자체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더 이상 환기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다르다. 〈두더지 혼인〉에서 혼인의 방식은 현실의 혼인의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기된다. 이 우화에서는 감추어진 의미와 기술된 의미가 크게 변별되지 않는다. 이는 〈두더지 혼인〉의 감추어진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두더지 혼인〉에서 논평은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트의 감추어진 의미를 “분수”나 “자족” 등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은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이질적이다. 〈두더지 혼인〉을 기술된 텍스트로 접한 독자가, 현실의 어떤 혼인 상황을 “두더지 혼인”이라고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수를 알라는 말인지 스스로 만족하라는 말인지 모호하다. 논평이 〈두더지 혼인〉의 해석을 고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두더지 혼인>이 향유되던 문화에서 이 텍스트가 어떤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더지 혼인>의 문화 내 해석 과정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소 사이를 왕래하면서 이루어진다. “두더지의 혼인”은 보는 사람에게 “분수”와 “자족”이라는 이질적 의미를 양산할 수 있다. 이 기의는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처럼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논평의 해석들은 의미를 총괄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일부 기표가 가지는 기의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논평을 벗어나 이야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층위의 “분수”와 개인적 층위의 “자족”이라는 해석소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현된다. 이는 주관적인 해석소라고 볼 수 있으며 <소녀로 변신한 쥐>의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가 차지하는 위상과는 달리 불분명하며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두더지 혼인>의 다양한 해석은 이 두 가지, 즉 사회적 층위에서 생산되는 의미와, 개인적 층위에서 생산되는 의미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두더지 혼인>을 사회적 층위로 해석할 때 두더지는 분수를 알거나 모르는 인물의 기표가 될 것이며 개인적 층위로 해석할 때 두더지는 자존감이 있거나 없는 인물의 기표가 될 것이다. 분수를 안다거나 자존감이 있는 인물의 기표가 될 때 두더지에게 긍정적 가치가 부여된다. 반대로 분수를 모르거나 자존감이 없는 인물의 기표가 될 때 두더지에게 부정적 가치가 부여된다.

“두더지 혼인”이라는 말은 혼인과 관련한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합의가

있다. 그러나 이야기 자체는 두 가지 대별되는 해석소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 해석소는 공적이거나 객관적인 위상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층위와 개인적 층위를 오가며 그 사이에서 더 많은 개별 의미 산출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고려하면 <두더지 혼인>의 해석적 코드는 사회적 층위와 개인적 층위 사이의 “진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두더지 혼인>의 해석 지평은, 혼인 이외 다른 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혼인이라는 콘텍스트에 대해서 다각적인 의미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열릴 것이다.

<두더지 혼인>은 “두더지 혼인”이라는 혼사(일)의 형태를 명명하는 진술적 의도를 강하게 가진다. “두더지 혼인”이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설화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실천적·수행적 측면이 있다. 이야기와 속담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그 위에서 혼인 관련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수행적 양상이다. <두더지 혼인>은 독자가 가진 정보의 확장을 꺾거나 세태에 대한 비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수행적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소녀로 변신한 쥐>가 독자의 구체적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덜 역동적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소녀로 변신한 쥐>는 이야기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 행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술성보다는 수행성이 중요하다. 반면 <두더지 혼인>은 혼인의 어떤 현상을 진술할 수 있어야 비판이나 교정이라는 구체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술성이 수행성보다 중요하다.

V. 남은 문제들

텍스트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어떤 텍스트도 그것의 효과가 무엇이 될 것이지, 텍스트 자체로 보증하기는 어렵다.

특정 텍스트가 어떻게 해석되고, 사용되고, 기능하는가는 모두 텍스트와 세계의 의미를 구하고자 하는, 독자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이다. 본고는 인도와 한국의 ‘두더지 혼인’ 설화를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의미화 하도록 이끄는 해석적 틀과 해석적 코드를 고려하면서 비교 문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녀로 변신한 쥐>의 메시지는 외곽 이야기, 최종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고정된다. 외곽 이야기라는 틀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해석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판차탄트라』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들은, 최종 이야기는 동일하지만 외곽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다른 이야기 가운데에는 외곽 이야기의 의도와 본 이야기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아 이야기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소녀로 변신한 쥐>는 외곽 이야기의 의도와 본 이야기의 의미가 일치하면서 메시지가 강화된다. 나아가 왕자를 교육한다는 최종 이야기 역시 메시지의 강화에 한 몫한다. 그 결과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는 문화 내에서 혼인, 정치, 외교 등 다양한 층위로 전이되면서 확장될 수 있다. <소녀로 변신한 쥐>와 이것이 적용되는 다양한 층위의 관계를 본고에서는 ‘확산’이라는 해석적 코드로 명명하였다.

반면 <두더지 혼인>의 해석적 틀인 논평은 <소녀로 변신한 쥐>의 외곽 이야기나 최종 이야기처럼 강력한 틀로 기능하지 못한다. 모든 논평이 그러한 방식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두더지 혼인>의 논평은 이야기 기호 가운데 몇 가지에 초점을 두어 기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세속의 “두더지 혼인”라는 현상을 강조하거나, 분에 맞지 않는 혼인을 비판하는 것이다. 논평에서 양산되는 의미는 “분수”라는 사회적 층위와 “자족”이라는 개인적 층위로 대별될 수 있다. 이는 분명하게 제시되기보다는 암시되거나 추론된다. <두더지 혼인>의 해석은 이야기의 대한 또 다른 해석 가능성을 열어 놓는 해석적 틀의 존재로 인해 다양하게 양산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회적 층위와 개인적 층위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하나의 층위에 더 가까울 수도 있으며, 그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를 수도 있으며, 두 가지의 충돌을 통해 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진동”이라는 해석적 약호로 명명하였다. <소녀로 변신한 쥐>가 확산을 통해 고정된 메시지를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데 비해 <두더지 혼인>은 진동을 통해 혼인의 다양한 의미를 깊이 있게 양산한다.

텍스트의 활용 혹은 사용(usage) 측면에서 볼 때, 인도는 메시지의 고정성과 콘텍스트의 다양성, 한국은 콘텍스트의 고정성과 메시지의 다양성 혹은 모호성으로 대별된다. 이것들은 상호 교차하면서 최종적인 의미를 만들어가기에 어떤 문화에서 이야기의 해석적 지평이 더 풍부한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힘들다.

인도 문화적 맥락에서는 고정된 메시지와 다양한 콘텍스트가 만나서 의미를 생산하며 다양한 맥락을 통해 텍스트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다양화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이때 메시지 자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는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되는 다양한 콘텍스트가 있기에 결국 텍스트의 메시지는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다. 혼인의 콘텍스트에서 본성에 해당하는 것은 카스트이지만 외교의 콘텍스트에서 본성에 해당하는 것은 역사일 수 있다. “본성이 개성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는, 때로는 “카스트가 성격보다 중요하다”, “상대국과의 역사가 현재보다 중요하다” 등이 될 수 있다. 이는 메시지의 변용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원래 이야기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던 잠재성이 콘텍스트에서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고정적 콘텍스트에 대해 다양한 해석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텍스트 사용이 이루어진다. 이때 이야기 해석소가 다양하기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더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소를 적용하는 것이 된다. 인도에서 고정된 메시지가 다양한 콘텍스트에서 적용되거나

실현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두더지 혼인> 설화가 적용되는 콘텍스트 자체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의 어떤 상황이 “두더지 혼인”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상황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 피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이렇게 <두더지 혼인>의 기의는 고정되지 않은 채 소통된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이것이 적용되더라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야기 해석에 따라 “두더지 혼인”을 비유헌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다. “두더지 혼인”이라는 말이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기는 하지만 <두더지 혼인>에 대한 해석적 차이로 인해 정확하게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기는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른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혼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한국에는 “두더지 혼인”이라는 속담이 널리 퍼져있고 설화의 콘텍스트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위에 특수한 의미들을 덧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두더지 혼인>의 사용은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것과 특수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분할된다고 할 수도 있다. 『백일집』에서 본 것처럼, 학문을 하는 데 있어, 높은 것을 욕심내다 처음에 마음먹은 바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 “두더지 혼인”의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또 다른 반성적 사유와 지적 통찰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특수한 독자들에게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인도에서 이 이야기는 덜 떨어진 왕자들의 단기 교육을 위해 구술되고, 대상자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위해 이해가능하고 명료하게 유통된다. 인도에서 <소녀로 변신한 쥐>가 대중적 교육과 대중적 소통을 전제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식인에 의한 특수한 설화 사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사용이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메시지 자체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진 하나의 효과이다.

모든 서사는 그 자체로 혼종적 경향을 가진다. 하나의 서사가 사적이며 공적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용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변용이 토착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의 뒤섞임을 전제로 할 때 서사의 혼종성은 극대화된다. 한국의 <두더지 혼인>은 혼종성을 가진 대표적인 서사 가운데 하나이다. 벽이 돌미륵으로, 쥐가 두더지로 바뀌는 “풍토화”의 과정은 이 설화의 혼종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²⁴⁾ 본고는 이야기의 풍토화가 이루어진 지점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점을 포함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다르게 의미화 되고, 사용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해석적 틀로 논평에, 그 결과로 진동이라는 해석적 코드에 주목하였다. 한국에서 이 서사는 혼인이라는 사건을 매개로 긍정과 부정, 주관과 객관, 자존적 존재의 확인과 사회적 질서의 확인 사이를 진동하는 다층적 의미의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이는 <두더지 혼인>이 한국 문화에서 다원적인 세계를 서사화 하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구술로 전승되는 ‘두더지 혼인’이 30여 편 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기술된 텍스트와 다른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구술된 텍스트와 기술된 텍스트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어떤 해석의 코드를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장을 통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교문학적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두더지 혼인’ 설화에 대한 논의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²⁵⁾ 또한 앞으로

24) 설화가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전파될 때 그 지방에 잘 알려진 사물로 이야기 요소가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인도 『판차탄트라』의 <원숭이와 자라>가 한국에서 <토끼와 거북>으로 바뀐 현상이 대표적이다. 성기열, 「진화론」, 김열규 외, 『민담학개론』, 일조각, 1982, 95쪽.

25) 중국의 ‘두더지 혼인’을 일별하자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는 쥐가 소녀로, 다시 쥐로 변신하는 부분이 있는 판본과 없는 판본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쥐와 혼인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와 가장 세다고 생각하여 고양이에게 갔다가 모두 잡혀먹는 것으로 끝나는 판본의 존재이다. 중국의

이루어져야 할 비교문학적 연구에서 해석적 틀과 해석적 약호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비교문학적 연구는 대부분 의미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그러한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치중하면서 이루어졌다. 해석적 틀과 해석적 약호를 염두에 둘 때 비교문학적 연구는 의미의 차이를 밝히는 데에서 나아가 의미 생산 메커니즘의 차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선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야기들은 모티프와 구조에 있어 매우 특이하다. 뿐만 아니라 “취 혼인 날”이라는 민속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판본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현재 연구가 진행된 대부분의 중국 텍스트는 1980년대 이후에 기록된 것들이다. 이야기가 활발하게 향유되던 당시의 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헌 텍스트 확보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 강성용, 「빠짜판뜨라(Pañatantra)의 전승과 교훈—도덕(dharma)과 현실(nīti) 사이에 선 삶을 가르치는 인도 고대의 우화—」, 『구비문학연구』 3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179-223쪽.
- 고상안, 『효빈잡기』, 김남형 역,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 김태균, 「궤(두더지) 혼인담」의 서사적 의미와 문학적 치료 활용, 『문학치료연구』 2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9-37쪽.
- 니콜러스 로일, 『자크 데리다의 유명들』, 오문석 역, 엘피, 2003.
- 데이비드 롤스톤, 『중국 고대소설과 소설 평점: 행간 읽기와 쓰기』, 조관희 역, 소명출판, 2009.
- 맹상염, 「한·중 ‘궤 혼인 설화’의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심익운, 『백일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도미상.
- 엘리자베드 프로인드, 『독자로 돌아가기』, 신명아 역, 인간사랑, 2005.
-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 이동근, 『朝鮮後期 「傳」文學研究』, 태학사, 1991.
-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 저자미상, 『기관』, 서울대소장 필사본, 연도미상.
- 저자미상, 『계압만록』,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도미상.
- 최진아, 「당대 애정류 전기 연구」, 연세대학교 중문과 박사학위논문, 2002.
- 홍만중, 『순오지』,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71.
- 황인덕, 「‘두더지 혼인’ 설화의 印·中·韓 비교 고찰」, 『어문연구』 48집, 어문연구학회, 2005, 301-326쪽.
- Jonathan Culler, “Prolegomena to a theory of reading”, in Suleiman, Susan R. and Crosman, Inge (eds), *The Reader in the Text: Essays on Audience and Interpret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 Lawrence Grossberg eds., *Cultural Studies*, Routedledge, 1992.
- Patrick Olive, trans., *The Pacatantra: The Book of India's Folk Wisdom*, Oxford, 1997.

Codes of Interpretation in 'Mole's Wedding'

Ryu, Jeong-Wol

This paper is intended to identify different codes of interpretation between the Indian, and Korean versions of the folk tale known as "Mole's Wedding." Korean versions of the folk tale <Mole's Wedding> come from the Pañcatantra, a selection of tales from ancient India.

<The Mouse That Turned into Girl>, the indian version of <Mole's Wedding> relates to the age-old debate between nature and character and the text conveys the message, "Nature is stronger than character". It's frame story and final story reinforce the message. <Mole's Wedding> has another interpretive frame, commentary on the tales. It doesn't represent all of the signs but some signs in the text. The commentary is thought to be individual and obscure interpretation. <Mole's Wedding>'s signified is not clear. <The Mouse That Turned into Girl> is interpreted in several levels like wedding, politics, diplomacy and so on. I call the code of interpretation "diffusion".

<Mole's Wedding> is used at only one context, which is wedding. The indian text makes wide interpretive horizon on the basis of one clear message, "Nature is stronger than character" But Korean texts pendulate social level and private level of meaning. There are much room for new interpretations because the readers are not effected by the commentary. If the reader of <Mole's Wedding> makes his or her own interpretation about the text, it also belongs to some places between the two levels. I call the mechanism which is observed in the Korean text "pendulation"

Key Words: <Mole's Wedding>, <The Mouse That Turned into Girl>, Pañcatantra, Cross-culture, code of interpretation, frame of interpretation, text, context, comment, fable, diffusion, pendulate

투고일 : 2014.08.15 / 심사일 : 2014.09.01 / 심사완료일 : 2014.09.12